

오현섭 수사 파장속 엑스포 준비 분주한 여수

“견제없는 자치가禍 불렀다 비리 끊고 성공엑스포 총력”

여수는 삼체투성이였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의 나폴리’를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의욕은 ‘오현섭(60·구수) 전 여수시장’ 비리 사건으로 한풀 꺾여 있었다.

세계박람회가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공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도, 대형 홍보탑도 초대형 뇌물 사건에 가린 듯 했고, 기반시설을 갖추느라 한창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했던 시내 거리와 박람회 개최지 일대로 한산해 보였다.

오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비롯해 ▲이순신광장 조성(460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131억원) ▲인공해수욕장 조성 사업(84억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예새 모른척 외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민뿐만 아니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뇌물 사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렸다. 여수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설령 알고 있어도 말해줄 사람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기껏

이야기를 꺼내도 “하위직 공무원이 될 앞장나, 먹고 살기 바쁘게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입을 달았다. 여수시의회 내부에서도 “의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정 해양환경을 자산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 이미지가 온갖 뇌물이 난무하는 ‘비리 천국’인 것처럼 비쳐지면서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찡푸리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여객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만난 주민은 ““쪽팔려서” 여수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 주민은 “일부 양심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당의 단체장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니 예견된 사건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다. 지방의회 의원이 민주당 일색인 탓에 같은 당의 단체장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권력이 부패와 비리의 늪에 쉽게 빠져들

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정(自淨) 장치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에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질이 없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 등 박람회 지원 사업이 개시된 만큼 다시 한번 성공개최 불 보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남도가 9일 “성공 개최를 위해 다시 뛰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박람회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면서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돼 두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DJ 어록전’ 관심집중

남도 행정부지사,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참여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대표 서예가들이 DJ의 생전 어록을 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여 점이 선보였다. 순회 어록전 첫번째 순서인 전남도청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광주일보와 김대중 평화센터가 주최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순회 어록전’이 9일 전남도청 전시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5시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유제철 광주일보사장과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참여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대표 서예가들이 DJ의 생전 어록을 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여 점이 선보였다. 순회 어록전 첫번째 순서인 전남도청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에서 사전청문회 한다

인사 검증시스템 개선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대한 완벽한 사전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의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인사 검증 후반부에 유력 후보자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접수받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8개각에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들이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국회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 도덕성, 자질, 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또한,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지를 통해 기술하는 ‘자기 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기검증서를 바탕으로 현상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번에 공개한 새 인사검증시스템을 후임 국무총리와 장관 선임에 적용하겠다”면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전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무원 50% 특채 확대 백지화

37%선 유지키로

오는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민간 전문가 특채로 뽑기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5급 공무원 채용 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행정고시’ 제도 명칭을 ‘5급 공개채용’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행안부에서도 납득을 하고 당의 조율안을 받아들여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5급 공채는 260명에서 300명 선이었고 지난 10년간 특채비율은 37.4%였다”며 “5급 특채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37%선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12일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망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백지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효석·추미애 탈락

9일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경선 컷-오프에서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박주선, 천정배, 조배숙, 백원우, 이인영, 최재성 후보 등 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4면>

중앙위원 359명 중 315명이 참석(투표율 87.7%)해 1인3표를 행사한 이날 컷-오프 개표 결과, 예상대로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후보 등 ‘빅 3’는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표 주자인 박주선 후보와 천정배 후보도 가볍게 컷-

오프를 통과해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백원우, 이인영, 최재성 후보 등 486 주자들도 1~2명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본선 진출 기준인 9위 안에 진입,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조배숙 후보는 해신연대와 정동영 후보 측의 측면지원에 힘입어 9위안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여성배려 원칙에 따라 본선 결과에 관계없이 최고위원에 확정됐다.

반면, 예선 통과와 기대를 모았던 김효석, 유선호 후보는 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분투를 삼켰으며 추미애

후보도 예상을 깨고 탈락했다.

16명의 대표 경선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컷-오프는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됨에 따라 배제투표 등 계파별 투표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9명의 후보는 오는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27일 경까지 16개 시·도당위원장 경선일정에 맞춰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달 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장에서 실시된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당 컷오프 ‘빅3’ 통과



대한민국 대표축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제39회 안동민속축제
2010.9.24~10.3

장소 안동시내일원(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주최 안동시 주관 NTF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www.maskdance.com 054-841-6398

